

이 봄 지키 전에 ... 추억 만들러 갈까나

강릉 '경포호'

"경포호는 물이 거울처럼 깨끗하고, 깊지도 얕지도 않으며 사방이 하나같이 겨우 어깨까지 찬다. 서쪽에 경포대가 있다."

조선 후기의 백과사전 같은 문헌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서는 경포호에 대해 이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경호(鏡湖)'라고도 불리는 경포호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석호(瀉湖)나 사취의 발달로 바다와 격리된 호수)로, 관동 8경 가운데 한 곳이다. 인근 경포해변과 어우러져 여름철 대표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경포호는 사계절 내내 아름답다. 여름이 오기 전, 봄내음 물씬 나는 경포호를 알아보자.

◇강릉을 대표하는 벚꽃 명소 = 경포호는 호수 주위의 오래된 소나무 숲과 벚나무가 유명하다. 그 덕분에 오랫동안 강릉의 대표 벚꽃 명소로 인기를 끌었다.

매년 '경포 벚꽃 축제'도 열린다. 올해는 4월 4-9일, 6일간 경포습지관장에서 진행된다. '경포벚꽃망'을 테마로, 나만의 벚꽃핑을 찾아 떠나는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호수와 바다에 흠날리는 벚꽃은 진해의 균형제 못 지않게 아름답고 운치 있다. 다만 올해는 영남권 대형 산불을 예도하기 위해 각종 축하 행사와 공연은 취소되고, 프로그램도 최소한으로 축소 운영된다.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경포호에서 즐기는 벚꽃은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탁 트인 경포호를 배경으로 벚꽃 조명과 포토존이 설치돼 야간에도 수려한 벚꽃을 감상할 수 있다.

경포호는 산책로와 관광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봄에 방문하기에 제격이다. 강릉시는 지난해 경포호를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경포둘레길 12km' 산책로를 조성했다. 기존 호수 둘레 4.4km를 넘어 확장된 경포가 시연습지와 경포생태저지지를 연계해 새로운 관광 코스를 만들었다.

경포둘레길 12km는 경포호의 아름다운 풍경을 따라 자연 속에서 산책과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코스로, 강릉의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또, 경포호와 연계해 새로운 산책로 포토존을 설치했으며, 이 포토존은 경포호를 배경으로 다양한 사진 촬영이 가능한 공간으로 관광객들에게 좋은 추억과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경포호 인근에서는 자전거도 쉽게 대여할 수 있다. 2인용, 4인용 자전거도 있어



하늘에서 내려다본 경포호 전경.



경포호 주변에서는 2인용, 4인용 자전거를 쉽게 대여할 수 있다. 자전거길도 잘 조성돼 있어 봄내음을 맡으며 신나는 라이딩을 할 수 있다.

경포호, 관동 8경중 한 곳
우리나라 대표 석호... 전국구 명성

탁 트인 호수에 벚꽃·야경 등 풍경 수려
호수 배경의 '포토존' 인생샷 선사
자전거 등 대여 가족·연인 즐기기 최적

가족이나 연인들이 함께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강릉 경포호산소길 경포해변-연곡해변 구간은 손꼽히는 자전거길 명소로, 특히 연곡해변 인근 자전거도로는 방풍림 사이에 있어 초록 터널 아래 싱그러운 라이딩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봄날의 자전거 여행'을 테마로 한국관광공사 추천 '3월 여행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설과 함께 즐기는 경포호 = 오랫동안 다양한 문인과 화가의 사랑을 받아 온 경포호에는 다양한 전설도 전해진다.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에는 경포호가 만들어진 전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하루는 종이 쌀을 구걸하러 왔는데, 그 백성이 똥을 퍼줬더니 살던 곳이 갑자기 꺼져 호수가 되고, 쌀이 있던 곡식은 모두 자갈한 조개로 변했다고 한다. 매년 흉년이 되면 조개가 많이 나오고, 풍년이 되면 적게 나는데, 맛이 달고 향긋해 요기할 만해 그 지방 사람들은 '적곡(積穀)조개'라 부른다."

'홍장암'의 전설도 유명하다. 고려 우왕 때 강원도 안렴사 박신은 강릉 기생 홍장을 깊이 사랑했다.

강릉부사 조운홍은 박신을 한 번 놀려주려고 궁리를 했고, 홍장을 잠시 숨긴 뒤 홍장이 갑자기 죽었다고 박신에게 알렸다.

어느 날 조운홍은 슬퍼하던 박신을 초청해 경포대에서 뱃놀이를 벌였고, 술이 무르익을 무렵 멀리 호수에서 그림배 한 척이 나타났다. 배 위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조운홍은 놀라는 척하며 "저것은 필시 선녀의 놀음일 것이니 가까이 가서 함께 놀아보자"고 했다.

그림배의 여인은 꼭 홍장 같았고, 조운홍은 "저 배의 여인은 홍장의 누이 선녀로 화해 오늘 경호에 나타난 것 같다"며 배를 저어 다가갔다. 그 미인은 분명 홍장이었고, 박신은 깜짝 놀라며 그제야 속았음을 깨달았으며, 세 사람은 경포호에서 한바탕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홍장암'이라는 바위에 전해지고 있으며, 경포호에서는 이 전설을 형상화한 조각품도 볼 수 있다. 경포호는 단순한 호수가 아니라 자연, 역사, 문화, 생태, 경제적 가치까지 모두 아우르는 강릉의 보물 같은 곳이다. 이번 봄, 강릉의 보물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
/강릉=강원일보 권순찬 기자·사진 권태명기자



아름다운 경포호 벚꽃 야경.



오래된 벚나무들이 준비해 민개한 벚꽃들과 함께 특별한 봄을 보낼 수 있다.